

정보통신공사업 경기전망에 대한 업계인식조사결과

 **KICI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**

작 성 자 : 안철모 수석연구위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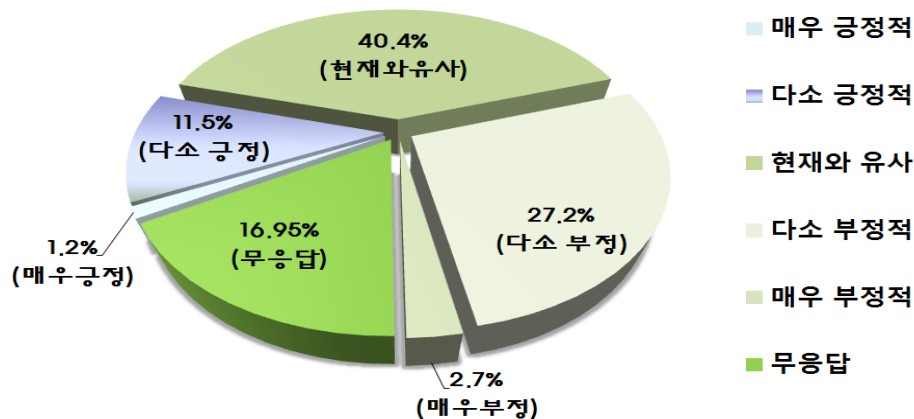
내용문의 : T - (031) 231-3410 / E - acm@kici.re.kr

- ◆ 조사대상 : 2014.7.31 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8,209개사중 2,000개사를 임의추출하여 조사
- ◆ 조사방법 : 온라인과 오프라인(우편, 현장배부)방식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
- ◆ 조사기간 : 2014. 8. 18 ~ 10. 1
- ◆ 응답자수 : 1,516개사(조사대상의 75.8%, 전체 공사업체의 18.4%)
- ◆ 조사내용 : **경기전망**, 공사업 관련제도 및 운영실태, 인력·기술개발실태 등

※ 이번 보고서는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실태조사내용중 『경기전망』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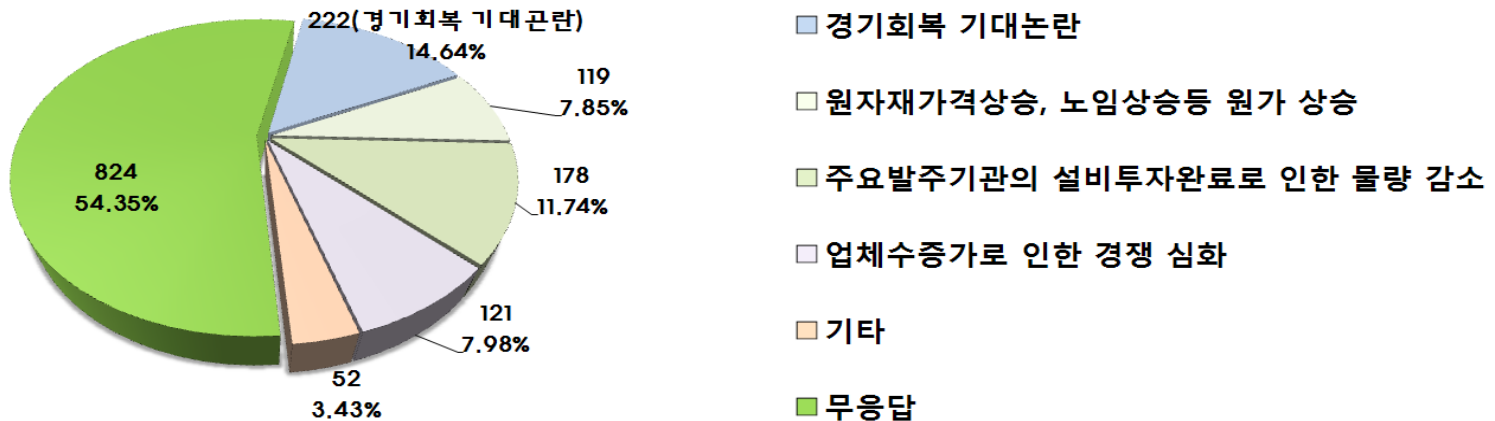
◆ 단기 2년이내의 공사업 경기전망에 대해

- ① 매우 낙관적, ② 다소 낙관적, ③ 현재와 유사, ④ 다소 부정적, ⑤ 매우 부정적으로 구분하여 조사
- 조사결과, **현재와 유사(40.44%)**하거나 **부정적인 견해(29.88%)**가 전체의 **70.32%**를 차지
-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부정적인 응답은 17.54% 감소하였으나, 무응답인 업체가 16.95%를 차지하여 향후 경기예측이 어려운 것으로 추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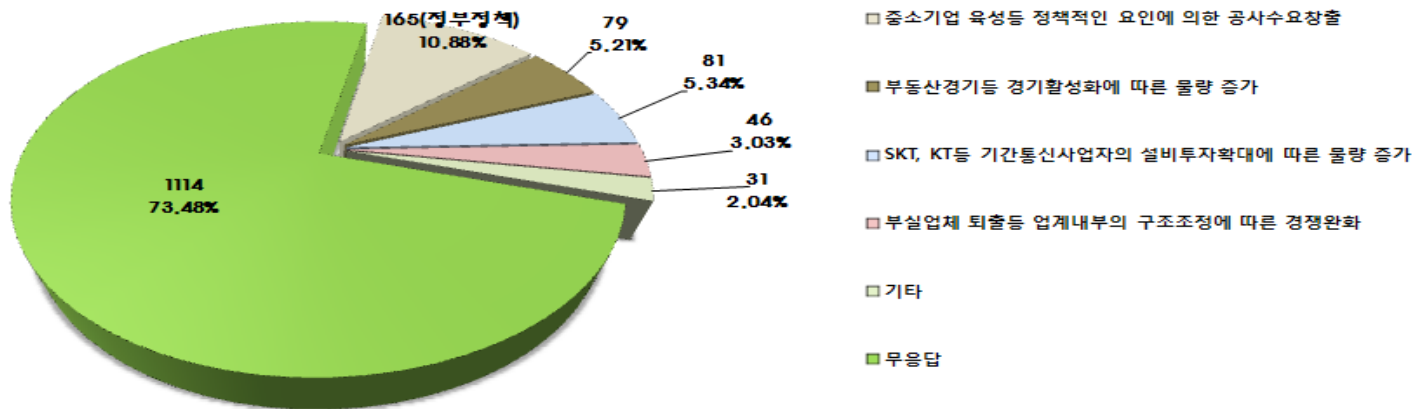
◆ 부정적으로 전망한 이유에 대해,

- ①경기회복 기대 곤란, ②원자재 및 노임상승등 원가상승, ③주요발주기관의 설비투자완료로 인한 물량감소, ④업체수 증가로 인한 경쟁심화, ⑤기타의 5가지 요인으로 조사
- 조사결과, "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"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으며,
- "주요발주기관의 설비투자완료로 인한 물량감소", "원자재가격 상승 및 노임상승등 원가상승"의 순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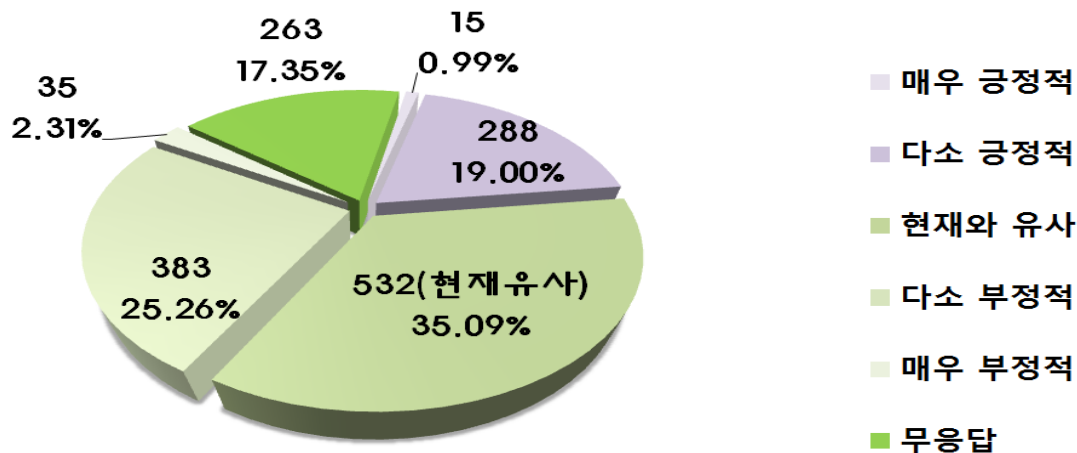
◆ 긍정적으로 전망한 이유에 대해,

- ① 중소기업육성등 정책적인 요인에 의한 공사수요창출, ② 부동산경기등 경기활성화에 따른 물량증가, ③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확대에 따른 물량증가, ④부실업체 퇴출등 업계내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경쟁완화, ⑤기타의 5가지 요인으로 조사
- 조사결과, "중소기업육성등 정책적인 요인에 의한 공사수요창출"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, "부동산 경기등 경기활성화에 따른 물량증가", "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확대에 따른 물량증가", "부실업체 퇴출등 업계내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경쟁완화"순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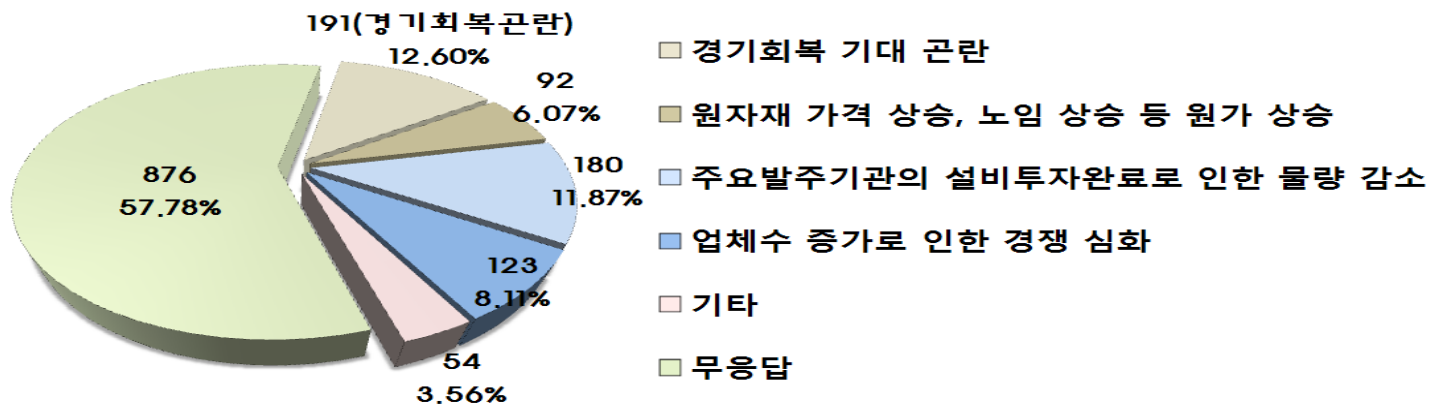
◆ 중장기(3년이후)의 공사업 경기전망에 대해

- ① 매우 낙관적, ② 다소 낙관적, ③ 현재와 유사, ④ 다소 부정적, ⑤ 매우 부정적으로 구분하여 조사
- 조사결과, **현재와 유사(35.09%)**하거나 **부정적인 견해(27.57%)**가 전체의 **62.66%**를 차지
-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부정적인 응답은 12.59% 감소하였으며, 단기 전망에 비하여 현재와 유사하거나 나빠지질 것이라는 비중이 7.66% 적게 조사되어, 중장기 경기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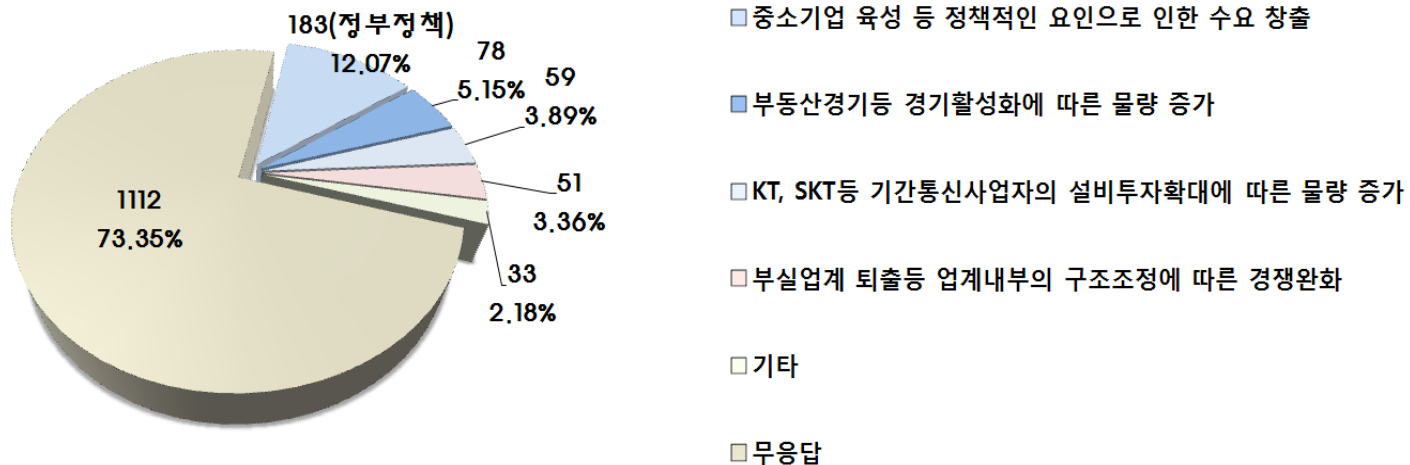
◆ 부정적으로 전망한 이유에 대해,

- ①경기회복 기대 곤란, ②원자재 및 노임상승등 원가상승, ③주요발주기관의 설비투자완료로 인한 물량감소, ④업체수 증가로 인한 경쟁심화, ⑤기타의 5가지 요인으로 조사
- 조사결과,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중 "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"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으며, "주요발주기관의 설비투자완료로 인한 물량감소", "업체수 증가로 인한 경쟁심화"의 순으로 나타남
- 단기전망과 비교할 때, 업체수 증가로 인한 경쟁심화가 세번째 요인으로 조사된 점은 경기회복이나 물량창출이 어려우므로 보완적인 방법으로 적정업체수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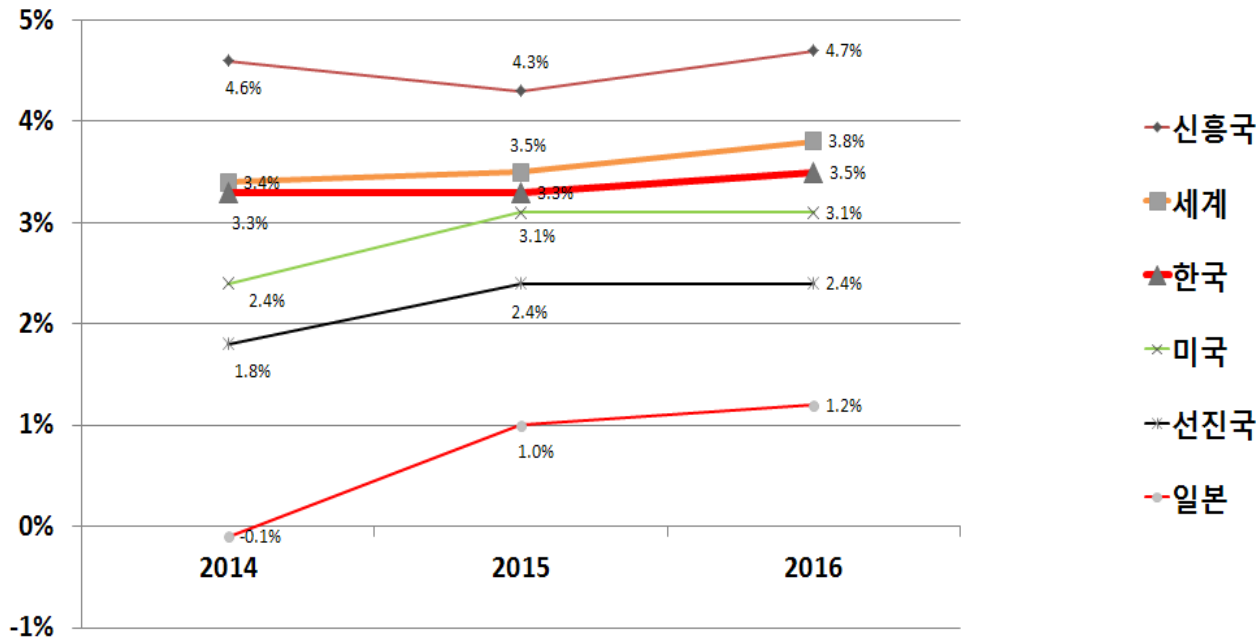
◆ 긍정적으로 전망한 이유에 대해,

- ① 중소기업육성등 정책적인 요인에 의한 공사수요창출, ② 부동산경기등 경기활성화에 따른 물량증가, ③ 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확대에 따른 물량증가, ④ 부실업체 퇴출등 업계내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경쟁완화, ⑤ 기타의 5가지 요인으로 조사
- 조사결과, "중소기업육성등 정책적인 요인에 의한 공사수요창출"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, "부동산 경기등 경기활성화에 따른 물량증가", "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확대에 따른 물량증가"순으로 나타남



정부는 우리경제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

- ◆ 국제통화기금(IMF)는 '15년 세계경제를 "14년 대비 **완만한 회복세**" 로 평가



※ 출처 : 기획재정부, 『 '15.4월 국제통화기금(IMF) 세계경제전망 발표』, 2015.4.14.

◆ 우리 정부(기획재정부) 는 2015년 4월 현재, 저유가, 주택·주식시장 회복, 이란 핵협상 잠정 타결등 경제회복의 긍정적 요인들로 인해 **우리경제가 완만히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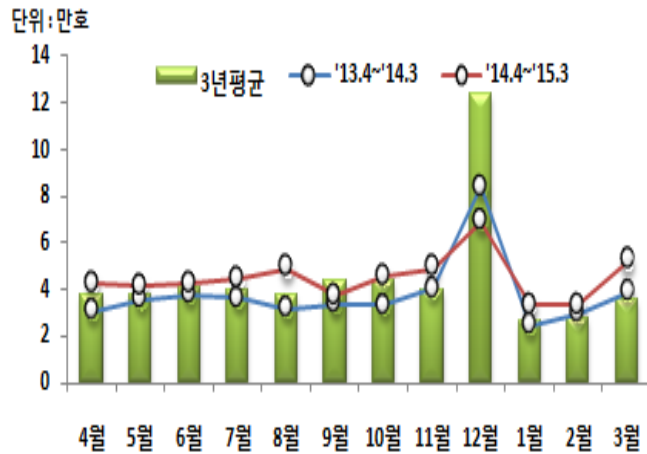
- 2015년 1/4분기 건설투자는 전기대비 7.5% 성장 (전년 동기대비 0.5% 성장)
- 2015년 2월 현재, 건설기성실적은 전월대비 4.5% 증가
- 한국은행은 2015년 1/4분기 국내총생산(GDP)는 전기대비 0.8% 성장(전년동기대비 2.4%)하였고, 국내총소득(GDI)는 전기대비 3.6% 증가한 것으로 발표

※ 출처 : 기획재정부, 『최근 경제동향』, 2015.4.8 / 한국은행, 『2015년 1/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』, 2015.4.23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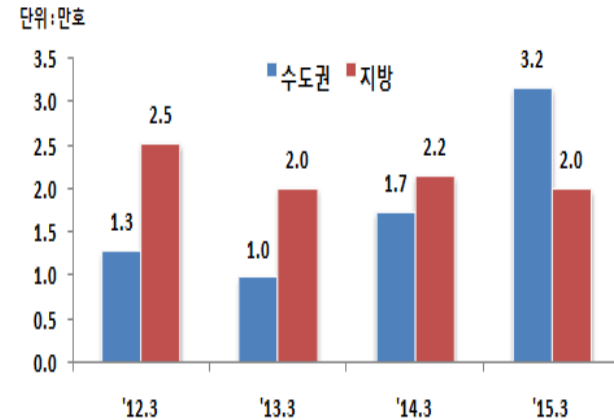
◆ 정보통신공사업과 유사한 건설업의 각종 데이터는 **건설경기가 회복세임을 표시**

- 2015년 3월 주택인허가 실적은 52,200호, 전년동월(38,969호) 대비 34.0% 증가

< 월별 인허가 실적 추이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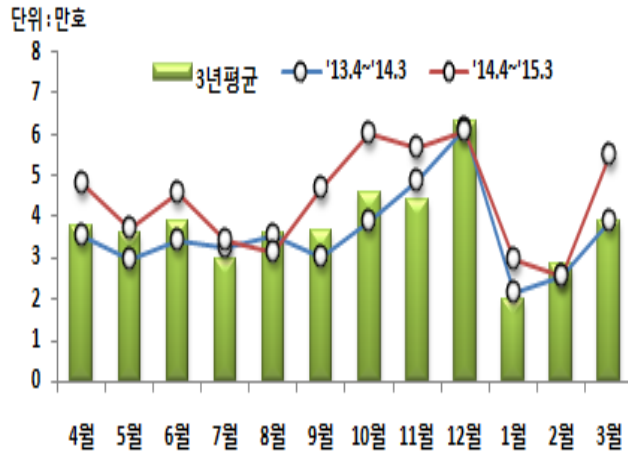
< 지역별 3월 인허가 실적 추이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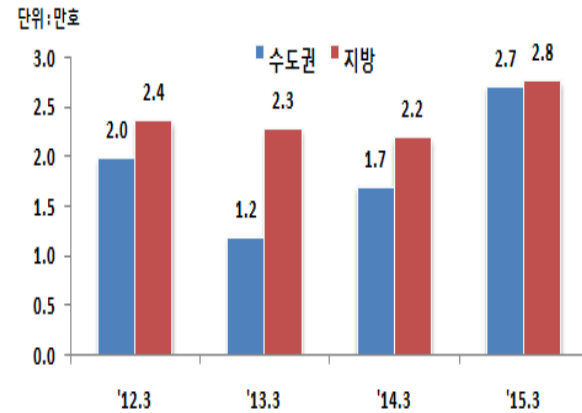
⇒ 주택의 인·허가 실적은 향후 진행될 주택건설공사의 물량을 예측할 수 있는 수치로서, 전년 동월 대비 34.0%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금년중 주택건설물량이 전년 동월에 비해 34%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함

- 2015년 3월 주택착공실적은 54,948호, 전년동월(39,059호) 대비 40.7% 증가

< 월별 착공 실적 추이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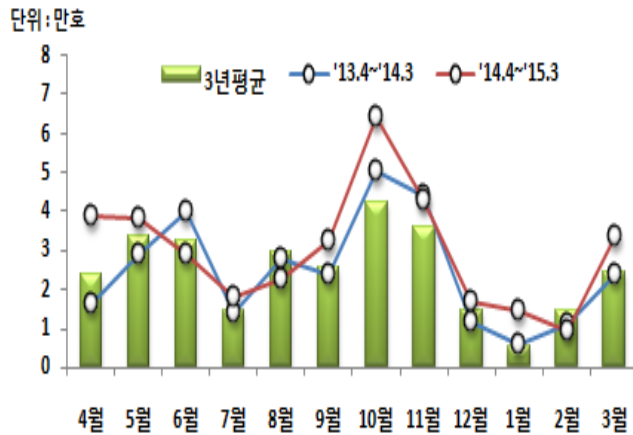
< 지역별 3월 착공실적 추이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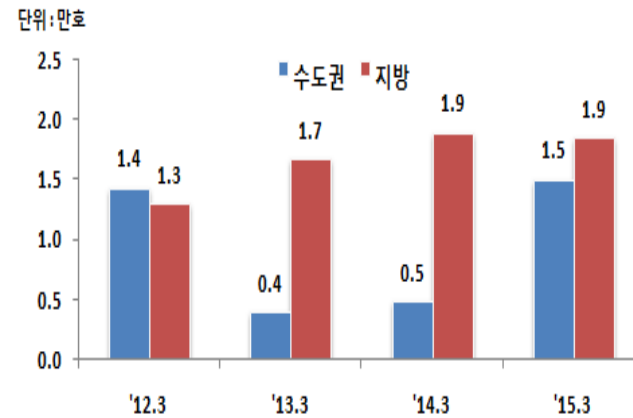
⇒ 주택 착공실적은 현재 새롭게 시작된 주택건설공사의 물량을 알수 있는 수치로서, 전년 동월 대비 40.7%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3월 현재 새로 시작된 주택건설물량이 전년 동월에 비해 40.7%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함

- 2015년 3월 **공동주택 분양실적**은 33,637호, **전년동월(23,902호) 대비 40.7% 증가**

< 월별 분양 실적 추이 >



< 지역별 3월 분양 실적 추이 >



⇒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향후 주택인·허가와 건설공사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향후 진행될 주택건설공사의 물량을 알수 있음. 동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40.7%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향후 건설물량이 약 40.7%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함

※ 출처 : 국토교통부, 『3월 주택 인·허가 5.2만호로 전년동월대비 34.0% 증가』, 2015. 4. 24.

- ◆ 정보통신공사업경기에 대한 업계의 인식은 현재와 유사하거나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(단기 70.32%, 중장기 62.66% 응답)
- ◆ 그러나, 2015년 4월 현재, IMF는 세계경제에 대해 완만한 회복세로, 우리 정부 역시 우리 경제에 대해 완만한 회복세로 전망
- ◆ 특히, 건설업의 경우, 최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완료단계에 따른 공공물량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지만, 건설 투자실적 및 건설기성실적의 증가, 아파트 분양의 증가 및 미분양주택의 감소, 2015년 3월의 전년동월대비 건축인허가·착공·분양·준공실적의 증가(약 평균 29.75% 증가)는 향후 건설업의 경기전망이 긍정적임을 표시